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

이 자 성 · 김 종 숙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prerequisite of the self-supporting operation of the Invil Project as well as the Gyeongsangnam-do citizens' awareness of the self-supporting operation of the Gyeongsangnam-do Invil Project.

The study methods included a survey among and interviews of the civil servants and the residents supervising 29 Invil Projects in 18 cities and provinces located in Gyeongsangnam-do. Further, based on the 417 sets of collected data, the frequency, cross-tabulation,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d ANOVA result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for Window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on the awareness of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the Invil Project to the regional activation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view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Invil's self-supporting opera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which showed a large ratio of respons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ain purpo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il Project is to increase (as state by the experience and e-commerce types) an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s stated by the mixed type). What was viewed as the greatest difficul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il Project was the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residents' lack of determination to implement the project. As for the prerequisites of the self-supporting operation of the Invil Project, the most frequent responses were informationization support, followed by human resources, facility resources, and operation methods. Based on these aforementioned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제1저자 : 이자성, 제2저자 : 김종숙

주 제 어 :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소득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key words : Invil Project, self-supporting operation, income creation, activation of a regional community, digital divide

self-supporting operation of the Invil Project : (1) more vigorously promoting citizen awareness of the Invil Project as a social capital and as a tool for obt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2) providing a distinct self-supporting operation method by degree of development and Invil Project type; and (3) promoting citizen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elf-supporting Invil operation.

1. 서론

IT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결합·융합을 통해 질적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지역정보화도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의 1.0시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확장기로서 2.0시대를 거쳐, 지역사회 정보자원 인프라와 기술을 융합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정보화 3.0시대에 접어들었다(전자신문, 2009).

현재 지역정보화는 기 구축된 정보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지역산업을 융합하는 지역개발의 필수 요소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보인프라 자원으로서 정보화마을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마을은 1990년대 초기에 도시-농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제시되었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 개발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정보화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의견 반영에 한계가 발생하였고(김구, 2010), 정보화마을사업도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10여년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관 주도 운영 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전용식, 2008: 64).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보화마을 운영의 자립화를 강조하고, 정보격차 해소에서 경제적·공동체적 관점으로 성격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정보화마을 초기 목표인 정보격차 해소가 어느 정도 달성됨에 따라 새로운 목표설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마을을 지역특산물 및 문화, 자연자원 등과 유기적 연계와 온라인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수익창출에 이어 2011년도부터는 농어촌에 보편화된 다문화가정의 화상상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마을의 목적과 역할을 다변화시키고 있다(경상남도, 2011: 127).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정보화마을의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하였다. 자립운영의 필요성은 행정안전부가 2004년 4월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부터 꾸준히 피력하였으며, 2010년 신규 정보화마을 선정 계획에서 사업비를 지방비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2010년도부터는 국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로 지원 예산의 축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의지를 반영하였다(행정안전부, 2010: 1).

그러나 중앙정부 사업의 재정 지원 중단과 자립운영의 요구는 이미 10년 동안 각종 지원과 혜택에 길들여진 자치단체와 주민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로서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은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보화마을의 준비 정도 및 인식 전환 등에 대한 정보화마을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 피드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을 사례로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을 주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립운영의 필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자립운영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정보화마을의 이론적 검토

1. 정보화마을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자립운영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정보화는 지역간 정보격차 완화 및 지식정보 강국을 지향한 전자정부 사업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지역간 경제력 불균형과 정보격차가 표출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정보화마을사업이 도입되었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2001)가 시행한 시책으로써 초기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이란 이름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한 정보 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마을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시행한 ‘마을정보센터’, ‘사이버타운 조성’ 등 정보화마을과 유사한 사업을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2001.11)’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리하여 본격적인 정보화마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초기 정보화마을은 선진국의 전자마을사업이 지역사회의 일체감과 주민참여 및 정보공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Schuler, 1996; 서진완, 2005: 96), 이를 벤치마킹하여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화를 확산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개념을 원용하였다(권오혁, 2003: 138).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가 2001년 시행에 있어 전국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마련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농촌, 어촌, 산촌 등 정보화에서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보화마을의 초기 목표로서 정보격차 해소의 관점이 매우 두드러졌다.

정보화마을이 구축·운영되는 2004년 이후에는 마을에 구축된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고, 이를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로 자

연스럽게 연계되었다. 즉,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기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임광현, 2009: 144). 구체적으로 기 구축된 마을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특산물 및 체험상품에 대한 의견 교환, 정보화교육 실시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등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마을별 주민소득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보화마을은 초기의 정보격차 해소의 관점보다는 실제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소득증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되었다.

한편, 추진주체도 중앙정부에서 마을주민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행정안전부가 정보화마을 추진체계, 운영방법, 평가지표, 예산지원의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자립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평가지표와 예산에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정보화마을 평가지표의 경우는 2007년도 평가지표¹⁾를 수정하여 2009년 개선 지표에는 자치단체와 주민참여 의지²⁾, 지역여건 및 환경, 수익모델 등을 제시하여 정보화마을 추진주체의 의지 및 체계 등 자립 운영의 토대를 매우 비중 있게 제시하였다. 또한 예산지원도 1개 마을당 2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비를 대폭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실제로 지방비로만 지원하여 정보화마을이 추진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1). 정보화마을은 목표전환과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조성에서 자립운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기에 정보화마을은 질적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들

정보화마을 관련 연구는 정보화마을의 영향, 평가지표 도출이 많고, 2005년 이후에는 정보화마을사업 효과성 평가 및 활용도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주성재, 2001; 허우궁, 2002; 유홍재·채은희, 2009). 정보화마을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서진완(2003), 김상욱(2003), 김유석(2005, 2006), 정우열·손능수(2007), 임광현(2009) 등의 연구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 및 활용도 등에 관한 연구로는 김주원·김주익(2004), 김원동(2005), 서진완(2005), 김동원·김부철(2006), 허우궁(2008), 최연태·오현주(2010)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립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미미하지만, 정보화마을 평가지표 및 특성화 지표개발과 성공요소를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 이를 자립운영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자립운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정보

1) 정보격차해소, 지역경쟁력 강화, 활성화 의지, 공동체 활성화

2) 자치단체 의지에는 관련 실과 지원,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지방비 확보(단체장의 관심도)가 있으며, 주민참여 의지에는 사업추진 준비 등 다수 주민의 참여의지, 관련 비용 부담(인터넷 이용료, 센터 운영비, 정중협의 회비 등) 등을 제시하고 있다(임광현, 2009: 149).

화마을의 선정지표와 특성화 방안을 위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자립화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6)은 5년간 추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정보화마을사업의 중·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BSC 적용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도입단계→특성화→자립화로 조성단계를 구성하였다. 도입단계는 정보화마을의 목적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형, 커뮤니티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특성화단계는 소득유형별로 특산물판매형, 체험관광형, 서비스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자립화단계는 유비쿼터스를 적용한 네트워크화로서 주민생활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단계로 설정하였다. 전반적 구성은 유형화 단계로 판단되며, 이 중 자립화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화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표-1>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도
주성재	농촌지역의 정보화 확산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례분석	2001
허우궁	정보화마을사업 도입으로 인한 농촌마을 변화	설문분석	2002
서진완	정보화마을시범사업 평가모형 및 방법을 위한 지표 도출	문헌분석	2003
김상욱	정보화마을 평가지표	문헌분석	2003
김주원·김주익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실태 분석	사례분석	2004
김원동	정보격차해소의 관점에서 정보화마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심층면접법	2005
서진완	정보화마을사업의 딜레마와 향후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의 방향성	AHP 분석	2005
김동원·김부철	경상북도 사례를 통한 정보화마을 성공요인 분석	면접조사	2006
김유석	정보화마을 평가지표	설문조사	2005
김유석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지표 개선	설문조사	2006
정우열·손능수	경북지역의 정보화마을 성과평가	효과성 분석	2007
허우궁	한일간 정보화마을 사례 비교	문헌분석	2008
전용식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2008
유홍재·채은희	농촌정보화사업의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분석	회귀분석	2009
임광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사업평가	요인분석	2009
최연태·오현주	정보화마을의 웹사이트 이용분석을 통한 활용도 제고	STIVI분석	2010

또한, 정보화마을 특성별 발전방안에서 로드맵 구축시에 노력형, 자립형, 선도형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별로 초기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선도형은 주민의지, 지역경쟁력, 정보격차 해소, 공동체 활성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며 안정된 수익기반 정착으로 다른 마을에 수범이 되는 유형으로 정보화마을의 성숙단계로 정의하였다. 자립형은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주민 소득이 향상되었고, 마을운영의 소요경비 100%를 충당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노력형은 3개 분야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지속적 사업 추진이 미약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자립형은 체계, 의지 특히 마을 운영비가 자력으로 충당 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여 수익적 관점에서 자립성을 강조하였다(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8).

<표-2> 발전단계별 특성 정의

특성	단계	정의
선도형	성숙 단계	9 -사업에 대한 주민활성화 의지가 높으며, 안정적인 고객확보로 주민 소득
		8 매우 높아짐(시행 이전보다 50% 이상)
		7 -타 마을의 모델이 되는 선도적인 마을로 지역경쟁력 강화, 정보격차 해소 및 활용, 공동체 활성화 측면의 전체적 수준이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시스템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준으로 특화된 전문성과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마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단계
자립형	발전 단계	6 -구체적 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주민의 상당수가 소득이 30% 이상 높아지고(사업조성 이전 대비), 이를 통해 조성된 적립금은 마을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 100%를 충당
		4 -주체적 의지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지역경쟁력 강화, 정보격차 해소 및 활용, 공동체 활성화 측면의 전체적 수준이 체계는 잡혀있으나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수준으로 기술과 관리가 필요한 단계
노력형	초기 단계	3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막연한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로 소득이 저조한 마을(소득이 사업시행 이전 대비 20% 미만 증가)
		2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의 사업 참가상태가 저조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미담보
		1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지역경쟁력 강화, 정보격차 해소 및 활용,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위한 기반을 잡아야 할 단계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08: 8).

2010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서는 가치사슬 모델(Value Chain model)의 관점에서 자립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상품발굴 및 개발, 상품생산 및 품질관리, 상품판매 및 유통, 고객관리 및 홍보, 자금조성 및 활용 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세부단계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수익창출을 위한 상품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마케팅 방안으로 파악하여 수익활동으로서 정보화마을의 경영을 강조하였다(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이상의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시한 각종 지표를 분석해 보면 자립운영에는 주민의지(자치단체 포함), 사업조성비 확보, 상품의 판매 및 마케팅 과정 등을 강조하고 있어 자립운영을 소득창출과 관련된 기반 조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김동원·김부철(2006)은 정보화마을의 목표를 소득증대, 커뮤니티 형성, 정보격차 해소를 설정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4대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적 요인으로 지원체계, 의사소통, 지도자 활동, 전문가 연계로 구성하였고, 둘째, 기반적 요인으로 마을정보센터와 운영재원을 들고 있다, 셋째, 방법적 요인으로 정보화교육과 수익모델을 제시하였고, 넷째, 인식적 요인으로 참여의지를 제시하였으며, 세부성공요인은 <표-3>과 같다(김동원·김부철, 2006).

<표-3> 정보화마을 성공요인

구분	성공요인
조직적 요인	주민주도·정부지원의 체계
	의사소통·조정 경로의 명확화
	마을 정보화 지도자의 활동
	지역정보화 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본적 요인	마을정보센터
	운영재원 조성여부 및 방식
방법적 요인	정보화교육
	특수한 수익모델
인식적 요인	주민들의 참여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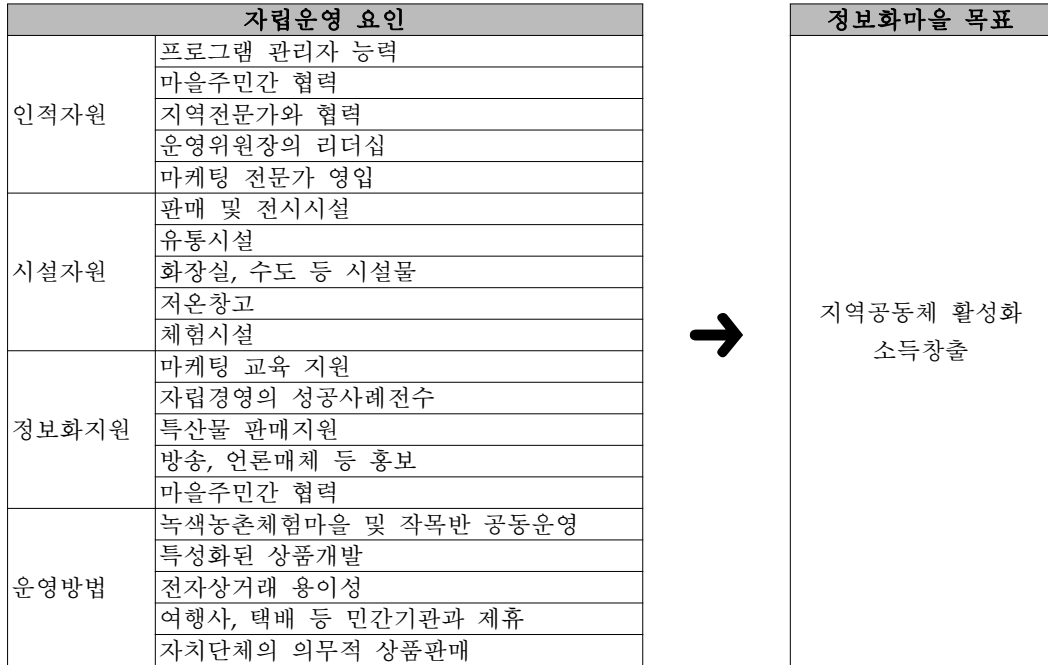
자료 : 김동원·김부철(2006: 7).

김동원 등의 연구와 유사하게 정진수(2010: 126)는 지역공동체 관점에서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공요인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리더십 및 지원조직의 조직적 측면, 시설 및 재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기본적 측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기술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 등의 방법적 측면, 그리고 특정상황에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전략을 선택하는 인식적 측면 등을 도출하였다. Cohill(1997: 297-318)은 블랙스버그 마을정보망인 BEV(Blacksburg Electronic Village)의 성공요인으로 정보화교육, 저렴한 접속비용, 성과의 가시성, 마을정보망의 전도사, 공공도서관의 역할, 콘텐츠의 다양성과 깊이, 서비스 제공업자의 수익성, 지역내 참여주체간 지원 등 8개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과 달리, 전용식(2008)은 내부 행위자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정보화마을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정보화마을사업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마을주민간에 규범과 신뢰가 높은 집단이 정보화마을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마을 내 규범을 준수하고 마을주민과 마을대표를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정보화마을 선정 후 이웃간 결속이 증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촌사회는 지역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행위자 중심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인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전용식, 2008: 73).

이상 선행연구 분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은 소득증대를 위한 판매 및 마케팅 관점에서 자립운영을 강조한 반면, 개별 연구자는 조직, 인적구성, 교육, 시설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등을 염두에 둔 자립운영 요소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정보화마을사업의 자립운영 요소로서 첫째, 마을 주민, 리더십, 관계자간 협력 등 인적 자원, 둘째, 판매 및 전시시설, 유통 및 기간시설, 저온창고와 같은 시설자원, 셋째, 운영을

위한 교육, 성공사례, 판매지원, 홍보 등 각종 정보화지원, 넷째, 작목반과 공동운영, 상품 개발, 전자상거래, 민간기관 제휴 등 운영방법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1) 분석틀

III. 경상남도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을 위한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관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면담조사는 2010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에 걸쳐 우수마을, 중간마을, 부진마을로 구분하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주민, 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³⁾

또한 설문조사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18개 시·군 29개 정보화마을의 주민과 담당공무

3) 우수마을(밀양시 평리산 대추마을, 얼음골 사과마을), 중간마을(김해시 칠산참외마을), 부진마을(거창군 가남마을, 함양군 화산마을)의 선정은 2009년도 정보화마을평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상남도 협조와 인터뷰 가능한 정보화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원 4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은 비확률적 할당표본추출방법으로 각 마을당 15부를 배부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경상남도 정보화진흥과 협조를 받아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 조사를 실시하여 441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부가 누락된 자료 24부를 제외한 41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417명에 대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15.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에는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정보화마을 인식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변수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요인의 집단간 평균차이 분석은 t검정과 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자립운영 인식과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면접조사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면접조사로서 정보화마을의 지역활성화 기여, 운영주체간 역할, 자립운영 가능성 및 애로사항, 향후 정보화마을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주민과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파일럿 조사(50명)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표-4>와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인식,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요인 등 총 3개 영역 3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전혀 불필요’ 1점에서 ‘매우 필요’ 5점까지 Likert Scale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필요 정도가 높다.

<표-4>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영역	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상별, 유형별, 월평균소득별, 거주기간별	7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인식	정보화마을 주된 운영 목적, 정보화마을 운영 애로사항,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인식정도,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의향 없는 이유	5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요인	시설자원(5), 인적자원(5), 정보화지원(5), 운영방법(5)	20
	전체	32

3. 표본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62.5%)가 여자(37.5%)보다 많고, 지역별로는 시지역 34.3%, 군지역 65.7%로 나타나, 경남지역 정보화마을 시·군 지역 분포 비중과 거의 유사하

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12.3%), 40대(33.7%), 50대(30.5%), 60대 이상(23.6%)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상별 구성은 회원 주민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담당(23.2%), 비회원 주민(20.5%), 공무원(5.7%) 순이었다. 정보화마을 유형은 복합형이 60.4%로 가장 많고, 전자상거래형(20.4%), 체험형(19%)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30.3%)의 저소득층이 많고,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의 응답자가 65.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57	62.5	유형별	전자상거래형	80	20.4
	여자	154	37.5		체험형	74	19.0
	무응답	6	-		복합형	235	60.4
지역별	시지역	140	34.3		무응답	28	-
지역별	군지역	268	65.7	월평균 소득별	150만원 미만	115	30.3
	무응답	9	-		150-200만원 미만	74	19.5
	연령별	30대 이하	51		12.3	200-250만원 미만	58
40대		140	33.7		250-300만원 미만	46	12.1
50대		127	30.5		300만원 이상	86	22.7
60대 이상		98	23.6	무응답	38	-	
연령별	무응답	1	-	거주기간별	15년 미만	135	34.4
	공무원	23	5.7		15년 이상	258	65.6
	회원 주민	205	50.6		무응답	24	-
	대상별	비회원 주민	83	20.5	전체	417	100
정보화마을 운영담당		94	23.2				
무응답		12	-				

IV. 연구결과

1. 자립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1) 5개 마을 인터뷰 조사 및 분석

(1) 지역활성화 기여

정보화마을의 지역활성화 기여는 우수마을, 중간마을, 부진마을 구분 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정보화마을 지정 및 운영에 따라 마을 홍보가 소득향상으로 연결되었다고 인식하였으며, 또한 정보화 기기 활용과 교육으로 지역주민간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우수마을의 경우, 회원주민뿐만 아니라 비회원주민도 정보화마을 행사, 교육 및 기기 활용, 홍보 등에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간 위화감 해소 및 교류활성

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중간마을의 경우는 초기에는 회원주민과 비회원주민간 불화가 발생했으나 행사 및 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간 반목을 어느 정도 해소하여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부진마을의 경우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주민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간 갈등도 표면화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정보화마을의 지역활성화 기여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마을수준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영주체간 역할

정보화마을의 운영주체간 역할로는 운영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해당 자치단체(담당부서), 농협, 택배회사 및 행사관련 관계자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우수마을은 운영위원장이 수입증대 방안, 주민간 신뢰관계 유지, 타사업 연계시 의견조정 등에서 역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중간마을은 운영위원 회원간 단결, 교육, 주민의 정보화마을 이해, 리더십 증진 등을 요구하였다. 부진마을은 정보화마을 회원간 친목도모, 회의안건 및 사업구상 등에서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3) 자립운영 가능성 및 애로사항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을별 구분 없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하였다. 우수마을의 경우는 정보화마을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마을정보센터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확보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자립운영 대안으로 제2차 가공품 판매 등을 강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마을은 2년 전부터 자립운영을 모색하고 있으나 판로 개척과 운영비 마련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이 없으면 정보화마을사업은 중단할 처지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자립운영을 위해서는 체험관 및 전시관 등 시설물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진마을은 현상태에서 자립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고, 자립운영을 위한 시설물 건립, 전자상거래용 품목제시, 정보화관련 실용교육 등을 요구하였다.

(4) 향후 정보화마을 발전방향

향후 정보화마을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수마을은 철저한 정보화마을 평가를 통해 질적 수준 제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제2차 가공품 개발과 체험을 중시하였다. 중간마을은 초기 목표인 정보격차 해소가 바람직하고, 현재 전자상거래 등 소득 창출 강조는 농촌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진마을은 정보화마을의 목표가 실적 중심의 전자상거래보다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참여와 인식형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지원을 전제로 정보화마을 운영 의지를 피력하였다. 우수마을은 어렵지만 자립운영 및 소득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중간마을 및 부진마을은 소득증대 보다는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관련 인식조사

(1) 정보화마을 주된 운영 목적

정보화마을 운영의 주된 목적은 주민소득 창출 증대(39.7%)라는 의견이 많았고,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28.5%), 지역경제 활성화(19.8%), 지역공동체 강화(12.2%) 순이었다. 분석결과, 정보화마을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지역공동체 강화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비교하면 체험형과 전자상거래형에서는 주민소득 창출 증대가 높게 나타났고, 복합형은 정보격차 해소의 의견이 많았다. 체험형의 2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정보화마을의 주된 운영 목적

구분	주민소득 창출 증대	지역공동체 강화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
빈도 (%)	161 (39.3)	50 (12.2)	117 (28.5)	82 (20.0)	410 (100)

<표-7> 유형별 정보화마을의 주된 운영 목적

(단위 : 명, %)

구분	주민소득 창출 증대	지역공동체 강화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전체
전자상거래형	33(41.8)	19(24.1)	17(21.5)	10(12.7)	79(100)
체험형	38(52.8)	3(4.2)	13(18.1)	18(25.0)	72(100)
복합형	81(35.1)	25(10.8)	83(35.9)	42(18.2)	231(100)
전체	152(39.8)	47(12.3)	113(29.6)	70(18.3)	382(100)

주) $\chi^2=28.828$, $p=0.000$

(2) 정보화마을 운영상 애로사항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민의욕 부족(29.3%)과 재정지원 미흡(28.5%)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 신규상품 및 서비스 개발 미흡(14.0%), 전자상거래 불편(10.3%), 상품판로 부족(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애로사항의 응답 차이를 보면 전자상거래형과 복합형은 주민의욕 부족을, 체험형은 재정지원 미흡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험형의 2순위는 신규상품 및 서비스개발의 미흡을, 복합형의 2순위는 전자상거래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정보화마을 운영상 애로사항

구분	재정지원 미흡	전자상거래 불편	상품판로 부족	운영위원장 리더십 부재	포장기술 부족	신규상품 및 서비스 개발 미흡	주민의욕 부족	기타	전체
빈도 (%)	114 (28.5)	41 (10.3)	40 (10.0)	23 (5.8)	5 (1.3)	56 (14.0)	117 (29.3)	4 (1.0)	400 (100)

<표-9> 유형별 정보화마을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명, %)

구분	재정지원 미흡	전자상거래 불편	상품판로 부족	운영위원장 리더십 부재	포장기술 부족	신규상품 및 서비스 개발 미흡	주민의욕 부족	기타	전체
전자 상거래형	19 (24.4)	4 (5.1)	10 (12.8)	8 (10.3)	0 (0.0)	10 (12.8)	26 (33.3)	1 (1.3)	78 (100)
체험형	27 (37.5)	3 (4.2)	4 (5.6)	8 (11.1)	0 (0.0)	13 (18.1)	17 (23.6)	0 (0.0)	72 (100)
복합형	61 (27.0)	32 (14.2)	25 (11.1)	5 (2.2)	5 (2.2)	30 (13.3)	66 (29.2)	2 (0.9)	226 (100)
전체	107 (28.5)	39 (10.4)	39 (10.4)	21 (5.6)	5 (1.3)	53 (14.1)	109 (29.0)	3 (0.8)	376 (100)

주) $\chi^2=30.690$, $p=0.006$

(3)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인식정도

현재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방향에 대해 매우 부정 17.1%, 부정 25.6%, 보통 31.9%, 긍정 19.8%, 매우 긍정 5.6%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평균이 2.71점으로 부정적인 인식(42.7%)이 긍정적인 인식(25.4%)보다 17.3%p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형을 제외하고(긍정적인 평가 41%) 체험형과 복합형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각각 58.1%, 44.4%로 높게 나타나 유형별로 인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인식정도

구분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전체
빈도 (%)	71 (17.1)	106 (25.6)	132 (31.9)	82 (19.8)	23 (5.6)	414 (100)

주) 인식정도의 평균은 매우 부정=1점, 부정=2점, 보통=3점, 긍정=4점, 매우 긍정= 5점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음

<표-11> 유형별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인식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 긍정	전체
전자상거래형	11 (14.1)	8 (10.3)	27 (34.6)	23 (29.5)	9 (11.5)	78 (100)
체험형	13 (17.6)	30 (40.5)	17 (23.0)	12 (16.2)	2 (2.7)	74 (100)
복합형	42 (17.9)	62 (26.5)	79 (33.8)	43 (18.4)	8 (3.4)	234 (100)
전체	66 (17.1)	100 (25.9)	123 (31.9)	78 (20.2)	19 (4.9)	386 (100)

주) $\chi^2=29.373$, $p=0.000$

(4)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보화마을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의향 없음 14.4%, 의향 없음 14.6%, 보통 37.8%, 의향 있음 27.8%, 매우 의향 있음 5.4%로 나타나 의향 있음(33.2%)이 지속의향 없음(29%)보다 4.2%p 더 많았다. 하지만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에 대한 평균이 보통수준에도 못미쳤으며(2.95점) 비교적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형과 체험형의 경우 정보화마을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의사(각각 49.4%, 30.6%)가 높은데 비해, 복합형은 운영지원이 없다면 자립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33.7%)이 많았다.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소득창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재정부족(42.5%)이 가장 많았고, 마을의 자립운영을 위한 준비부족(27.4%), 주민협조 부족(9.6%), 투명성 문제(5.5%), 무관심(4.1%), 시간부족(2.7%) 등이 있었다.

<표-12>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전체
빈도 (%)	59 (14.4)	60 (14.6)	155 (37.8)	114 (27.8)	22 (5.4)	410 (100)

<표-13> 유형별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

(단위 : 명, %)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 있음	매우 의향 있음	전체
전자상거래형	8 (10.1)	6 (7.6)	26 (32.9)	30 (38.0)	9 (11.4)	79 (100)
체험형	5 (6.9)	13 (18.1)	32 (44.4)	20 (27.8)	2 (2.8)	72 (100)
복합형	44 (19.0)	34 (14.7)	87 (37.7)	57 (24.7)	9 (3.9)	231 (100)
전체	57 (14.9)	53 (13.9)	145 (38.0)	107 (28.0)	20 (5.2)	382 (100)

주) $\chi^2=22.589$, $p=0.004$

<표-14>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의향 없는 이유

구분	재정부족	자립 문제	주민협조 부족	기타	투명성 문제	무관심	시간적 문제	전체
빈도 (%)	31 (42.5)	20 (27.4)	7 (9.6)	6 (8.2)	4 (5.5)	3 (4.1)	2 (2.7)	410 (100)

2.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요인분석

1)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정보화마을 관계자 면담조사와 1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변수(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은 고유값이 1.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각 회전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회전시켰다.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측정변수를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각을 인적자원, 시설자원, 정보화지원, 운영방법 등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각 요인별 누적설명력은 시설자원 63.9%, 정보화지원 60.9%, 운영방법 59.4%, 인적자원 56.6%이며, 각 항목의 적재값은 0.680 이상으로 독립변수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15>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문항)	요인1 (시설자원)	요인2 (인적자원)	요인3 (정보화지원)	요인4 (운영방법)
판매 및 전시시설	0.892			
유통시설	0.853			
화장실, 수도 등 시설물	0.782			
저온창고	0.775			
체험시설	0.680			
프로그램 관리자의 능력		0.782		
마을주민간 협력		0.776		
지역 전문가와 협력		0.774		
운영위원장의 리더십		0.732		
마케팅 전문가 영입		0.694		
마케팅 교육 지원			0.838	
자립경영의 성공사례 전수			0.787	
특산물 판매 지원			0.778	
방송, 언론매체 등 홍보			0.758	
마을주민간 협력			0.738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작목반 공동운영				0.807
특성화된 상품개발				0.799
전자상거래 용이성				0.798
여행사, 택배 등 민간기관과 제휴				0.734
자치단체의 의무적 상품판매				0.710
고유값(eigen value)	3.197	2.832	3.047	2.970
설명분산(%)	63.948	56.632	60.940	59.396
누적설명(%)	63.948	56.632	60.940	59.396

(2)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증방법으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검증하였다.⁴⁾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값이 시설자원 0.856, 정보화지원 0.839, 운영방법 0.826, 인적자원 0.803으로 나타나, 각 항목간 Cronbach's alpha 값이 0.803 이상으로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은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 즉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은 0.6 이상이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16>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시설자원	5	0.856
인적자원	5	0.803
정보화지원	5	0.839
운영방법	5	0.826

2)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의 필요 요인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항목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요인은 정보화지원(4.36점)이었으며, 다음은 인적자원(4.34점), 시설자원(4.28점), 운영방법(4.17점) 순이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로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필요 요인에 대한 평균 차이 여부를 t-검정과 분산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1) 정보화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균비교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있어 필요 요인으로써 정보화지원에 대해 집단별로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거주기간과 월평균 소득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17>과 같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정보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17> 정보화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균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p값	비고
유형별	전자상거래형	63	4.43	0.395	0.196	F=1.639
	체험형	52	4.37	0.562		
	복합형	216	4.31	0.522		
	전체	331	4.34	0.508		
월평균 소득별	150만원 미만	98	4.26	0.546	0.033	F=2.653
	150-200만원 미만	63	4.28	0.513		
	200-250만원 미만	54	4.27	0.455		
	250-300만원 미만	38	4.30	0.521		
	300만원 이상	69	4.49	0.422		
	전체	322	4.32	0.503		
거주기간별	15년 미만	110	4.25	0.547	0.023	t=-2.282
	15년 이상	224	4.39	0.486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필요한 정보화지원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4.51점)과 방송, 언론매체 등 홍보(4.41점), 특산물 판매 지원(4.22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마케팅 교육 지원과 자립경영의 성공사례 전수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18> 정보화지원 필요성에 대한 항목별 평균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립경영의 성공사례 전수	367	4.11	0.715
방송, 언론매체 등 홍보	385	4.41	0.640
정부의 재정적 지원	380	4.51	0.631
마케팅 교육 지원	369	4.22	0.686
특산물 판매 지원	376	4.38	0.675
전체	410	4.36	0.531

(2) 인적자원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비교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의 필요 요인으로써 인적자원에 대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비교하면, 유형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거주기간과 월평균 소득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19>와 같이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19> 인적자원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p값	비교
유형별	전자상거래형	64	4.38	0.442	0.436	F=0.833
	체험형	53	4.31	0.557		
	복합형	210	4.28	0.551		
	전체	327	4.30	0.532		
월평균 소득별	150만원 미만	99	4.22	0.567	0.047	F=2.445
	150-200만원 미만	60	4.22	0.485		
	200-250만원 미만	54	4.24	0.530		
	250-300만원 미만	36	4.34	0.491		
	300만원 이상	70	4.44	0.467		
	전체	319	4.28	0.522		
거주기간별	15년 미만	109	4.17	0.538	0.002	t=-3.119
	15년 이상	221	4.36	0.509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은 운영위원장의 리더십(4.49점)과 마을주민간 협력(4.49점)이 공동 1위였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능력(4.43점)과 지역 전문가 연계(4.07점), 마케팅 전문가의 영입(4.0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인적자원 필요성에 대한 항목별 평균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마케팅 전문가 영입	364	4.01	0.813
운영위원장의 리더십	374	4.49	0.670
마을주민간 협력	383	4.49	0.651
프로그램 관리자의 능력	380	4.43	0.648
지역 전문가와 연계	374	4.07	0.761
전체	409	4.34	0.539

(3) 시설자원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비교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의 필요 요인으로써 시설자원에 대해 집단별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유형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월평균 소득별, 거주기간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21>과 같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4.61점), 시지역(4.34점), 거주기간이 15년 이상(4.36점)된 주민이 자립운영에 있어 시설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21> 시설자원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p값	비교
지역별	시지역	124	4.34	0.624	0.042	t=2.046
	군지역	221	4.19	0.680		
유형별	전자상거래형	65	4.26	0.610	0.963	F=0.038
	체험형	52	4.23	0.762		
	복합형	211	4.26	0.643		
	전체	328	4.26	0.655		
월평균 소득별	150만원 미만	97	4.21	0.642	0.000	F=7.790
	150-200만원 미만	64	4.18	0.639		
	200-250만원 미만	54	4.01	0.639		
	250-300만원 미만	37	4.13	0.786		
	300만원 이상	67	4.61	0.517		
거주기간별	15년 미만	112	4.11	0.678	0.003	t=-3.018
	15년 이상	218	4.36	0.629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자원에는 체험시설(4.37점), 화장실·수도 등 시설물(4.33점)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외 판매 및 전시시설, 저온창고, 유통시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시설자원 필요성에 대한 항목별 평균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저온창고	371	4.19	0.925
판매 및 전시시설	369	4.21	0.852
유통시설	369	4.12	0.868
체험시설	385	4.37	0.773
화장실, 수도 등 시설물	382	4.33	0.772
전체	410	4.28	0.666

(4) 운영방법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비교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있어 필요 요인으로써 운영방법에 대해 집단별로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형별, 월평균 소득별, 거주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23>과 같이 유형별로는 체험형(3.96점)보다는 전자상거래형(4.24점)과 복합형(4.16점)에서 자립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월평균 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4.42점)에서, 거주기간별로는 15년 이상(4.20점)에서 자립운영을 위한 운영방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23> 운영방법 필요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p값	비교	
유형별	전자상거래형	64	4.24	0.486	0.019	F=3.996
	체험형	49	3.96	0.592		
	복합형	215	4.16	0.553		
	전체	328	4.14	0.552		
월평균 소득별	150만원 미만	97	4.03	0.551	0.000	F=6.180
	150-200만원 미만	63	4.11	0.510		
	200-250만원 미만	55	4.06	0.489		
	250-300만원 미만	36	4.12	0.631		
	300만원 이상	70	4.42	0.511		
거주기간별	전체	321	4.15	0.551	0.035	t=-2.121
	15년 미만	111	4.07	0.495		
	15년 이상	220	4.20	0.560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필요한 운영방법은 특성화된 상품개발(4.41점)이 가장 높았고, 전자상거래 용이성(4.21점),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작목반 공동운영(4.12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의무적 상품판매(3.87점)는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24> 운영방법 필요성에 대한 항목별 평균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특성화된 상품개발	380	4.41	0.681
전자상거래 용이성	387	4.21	0.693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작목반 공동운영	373	4.12	0.806
여행사, 택배 등 민간기관과 제휴	364	4.01	0.762
자치단체의 의무적 상품판매	363	3.87	0.787
전체	410	4.17	0.588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터뷰 조사 결과 정보화마을은 지역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확보 등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발전방향은 우수마을의 경우 자립운영 및 소득창출 방안을, 중간마을 및 부진마을은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정보화마을 운영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체험형과 전자상거래형은 주민소득 창출 증대, 복합형은 정보격차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정보화마을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자상거래형과 복합형은 주민의욕 부족, 체험형은 재정지원 미흡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형을 제외하고 인터뷰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다. 그리고 자립운영 요구시 정보화마을 지속 의향은 복합형이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소득창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재정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에 필요한 요소는 정보화지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적자원, 시설자원, 운영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마을 자립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정보화지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송·언론 매체 등 홍보, 특산물 판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적자원은 운영위원장의 리더십과 마을주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시설자원에는 체험시설, 화장실·수도 등의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자립운영에 필요한 운영방법은 특성화된 상품개발과 전자상거래가 용이해야 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작목반 공동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보화마을 주민이 자립운영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립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과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립운영의 필요 요인으로 정보화지원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가장 높아 아직까지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마케팅 교육 지원 및 성공사례 전수와 같은 운영을 위한 지식 축적에 관한 지원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경우도 위원장의 리더십과 마을주민간 협력은 매우 높으나 마케팅 전문가 영입 및 지역 전문가 연계는 매우 낮게 나타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관점의 자립운영과는 유리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미약하지만 재정 지원 없이도 운영 의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인터뷰 조사에 지적인 바와 같이 마을홍보로 인한 주민소득 연계, 정보화 기기 및 서비스 혜택, 주민간 친목도모 등의 지역공동체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화마을이 비즈니스 관점의 자립운영보다는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상호간 협력과 기획 능력 강화 등을 통한 운영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재정적 자립운영을 강요하기 보다는 정보화마을의 발전 및 성숙단계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재정 자립과 함께 사회자본으로서 정보화마을 인식

향후에는 정보화마을을 장기적인 비전과 특성화를 통해 운영비를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창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유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기 분석 결과와 같이 주민의 인식은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간 공동체 형성과 신뢰관계 구축 등 소득이외의 사회자본적 관점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패러다임 전환시에는 이러한 자립운영의 목적을 경제적 수익창출의 관점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사회자본의 관점까지 확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립운영에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2. 정보화마을 발전정도별·유형별 차별화된 자립운영 방식 제공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인식과 가능성은 마을별 발전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수마을 및 중간마을은 자립운영을 회의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립운영 방안을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반면, 부진마을은 자립운영에 관심이 없고, 전자상거래 및 체험방식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형은 자립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체험형과 복합형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관련 지식이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바, 즉각적인 경제적 자립 요구 및 재정 중단보다는 발전정

도 및 유형에 따른 단계적 자립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러한 상이성을 토대로 하여 차별화된 자립운영 방식과 교육을 통해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기획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자립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정보화마을 주민은 10여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수혜와 지원을 받아왔다. 따라서 목표 설정과 지역특화 상품의 발굴, 마케팅 등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생소하고 미흡할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자립운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립운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정보화마을 실패와 주민 반발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립운영의 필요성과 자신감 부여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전환과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도 정보화마을 평가를 위한 준비 보다는 정보화마을 운영의 내실화 및 자립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보 및 기술제공,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 등 재정 지원이 아닌 제도 및 정보 지원으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경상남도.(2011). 「2011년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 .
- 권오혁.(2003).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보화수준과 수요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공간과 사회」, 20: 117-142.
- 김구.(2010). "지역공동체 재창조를 위한 지역정보화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탐색".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2): 1-21.
- 김동원·김부철.(2006). "정보화마을의 성공요인을 통한 발전모델의 수립".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1-30.
- 김원동.(2005). "정보화마을 사업의 정책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정보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5(1): 7-57.
- 김유석.(2005).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및 활성화 방안」. 서울: 자치정보화조합.
- 김유석.(2006).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개선방안 연구」. 서울: 자치정보화조합.
- 김주원·김주익.(2004). "강원도 농촌정보화마을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18(2): 201-231.
- 서진완.(2005). "정보화마을사업의 딜레마와 방향성의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95-114.
- 유홍재·채은희.(2009). "농촌정보화마을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32(3): 85-106.
- 임광현.(2009). "정보화사업평가: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4): 141-170.
- 전용식.(2008).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학회지」, 9(2): 63-77.
- 정우열·손능수.(2007).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평가와 정책적 과제: 경상북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0(3): 19-43.
- 정진수.(2010). 「지역공동체 관점에서 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요인 분석-호미곶마을과 민등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자신문.(2009). 지역정보화 3.0시대를 향하여. 1. 13.
- 주성재.(2001). "농촌지역의 정보화와 지역발전: 원주 정보화시범마을사례(Rural Telematics and the Possib

il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Information Model village in Weonju, Korea". 「대한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6(5): 516-526.

최연태·오현주(2010).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이용도 분석 및 활용도 제공방안: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95-836.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2008). 「정보화마을 특성별 발전방안」.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신규 정보화마을 선정 계획」.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6). 「정보화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서울: 자치정보화조합.

허우궁.(2008). "정보통신기술과 농촌경제: 한국과 일본 정보화마을의 사례 연구(Can Information Technology Revive Rural Economies?: The Cases of E-Villages in Korea and Japan)". 「대한지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5): 728-742.

Cohill, A.(1997). Success Factors of the Blacksburg Electronic Village. In Cohill, A., and A. Kavanaugh (ed.). Community Networks: Lessons from Blacksburg, Virginia. Norwood, MA: Artech House.

Schuler, D.(1996). New Community Networks: Wired for Change. New York: ACM Press.

경상남도 정보화마을(<http://gsnd.invil.org>).

정보화마을(www.invil.org).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저자소개]

李 子 成 2003년 (일본) 토호쿠대학에서 "정보공개와 Accountability에 관한 일고찰"로 정보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의 사회정책실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행정참여, 전자정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관심이 있다. 최근 발표논문으로는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말레이시아 IT 정책과 전자정부 협력 전략", "한국 지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국제지역학회 일본분과 이사, 지방분권 운동경남본부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Tel: 055-239-0133, E-mail: jalee@gndi.re.kr

金 鍾 淑 2007년 인제대학교에서 "이러닝의 학습만족도와 학습성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인적자원개발, 교육행정, 지방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 "이러닝 학습성가의 영향변인 탐색과 인과분석의 교육정책적 함의", "지역인적자원개발 공공지원영역에 대한 인식도 차이 연구" 등이 있다. Tel: 055-239-0157, E-mail: jskim@gndi.re.kr